



## 미 증시, 연준 긴축 경계감 지속되며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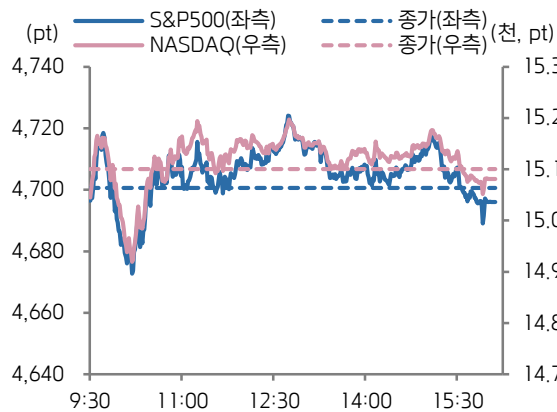
### 미국 증시 리뷰

6 일(목) 미국 증시는 연준 조기 긴축에 대한 불안 지속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의해 연일 하락.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S&P500 은 소폭 하락 출발. 오전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0.7 만명 vs 예상 19.7 만명)와 12 월 ISM 서비스업 PMI(62.0pt vs 예상 66.9pt, 전월 69.1pt)가 부진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 지수는 오전 장기물 금리가 1.75%까지 상승함에 따라,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되며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을 축소(다우 -0.47%, S&P500 -0.1%, 나스닥 -0.13%, 러셀 2000 +0.56%).

업종별로 에너지(+2.3%), 금융(+1.5%), 산업재(+0.5%) 등이 상승한 반면, 소재(-1.2%), 헬스케어(-1.2%), 유틸리티(-1.1%) 등은 하락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됨. 메타(+2.6%)와 엔비디아(+2.11%)는 CES2022 에서 메타버스 기대감을 높이는 뉴스플로우에 반등했지만, 애플(-1.7%), 테슬라(-2.2%) 등 대부분 성장주들은 금리 압력에 약세 흐름을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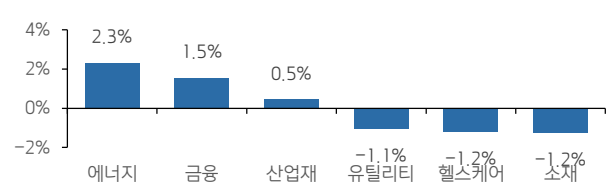
종목별로 JP 모건(+1.1%), BOA(+2.0%) 등 대형 은행주들은 금리 상승과 다음주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 MGM 리조트(+3.0%)는 크레딧 스위스가 2022 년 탑픽에 포함하면서 상승했고, 클라우드스트라이크(+4.6%)는 월즈파고의 오버웨이트 커버리지 시작 여파로 상승. 한편 휴마나(-19.4%)는 2022 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회원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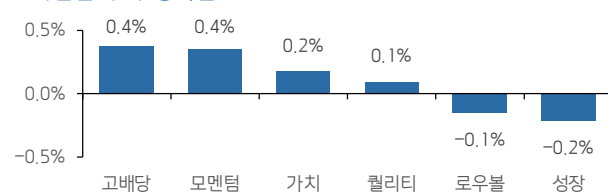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696.05	-0.1%	USD/KRW	1,200.92	+0.34%
NASDAQ	15,080.87	-0.13%	달러 지수	96.28	+0.11%
다우	36,236.47	-0.47%	EUR/USD	1.13	-0.19%
VIX	19.61	-0.61%	USD/CNH	6.40	+0.31%
러셀 2000	2,206.37	+0.56%	USD/JPY	115.91	-0.17%
필라. 반도체	3,909.04	+0.75%	<b>채권시장</b>		
다우 운송	16,345.25	+0.01%	국고채 3년	2.020	+11.3bp
<b>유럽, ETFs</b>			국고채 10년	2.485	+11.8bp
Eurostoxx50	4,324.81	-1.53%	미국 국채 2년	0.870	+4.4bp
MSCI 전세계 지수	748.24	-1.34%	미국 국채 10년	1.726	+2.1bp
MSCI DM 지수	3,203.03	-1.39%	<b>원자재 시장</b>		
MSCI EM 지수	1,222.74	-0.99%	WTI	79.48	+2.09%
MSCI 한국 ETF	75.59	-0.77%	금	1788.5	-2.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5.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최근 급락에 따른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가능성 2. 삼성전자, LG 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 3. 1,200 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 반전 여부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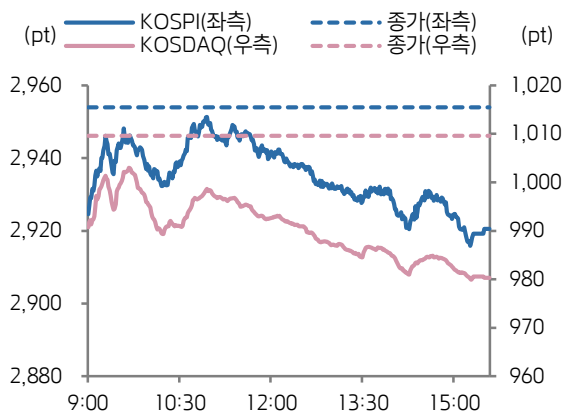
미국 10 년물 금리는 1.74%대에 진입했으며, 달러화도 강세 현상이 진정되지 않는 등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현재 시장참여자들은 3 월 금리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연준 내부적으로도 3 월 인상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양적긴축(QT)도 연내 시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시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시장에서는 6 월 혹은 9 월 QT 실행 예상).

그러나 3 월 인상 이후 연준의 긴축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6 일 패파 성향의 위윈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조차, 빠르면 3 월 금리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올해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라 추가 인상 일정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12 월 ISM 제조업 공급자 배송지수(72.2→64.9)에 이어, 12 월 ISM 서비스업 공급자 배송지수(75.7→63.9) 도 큰 폭 하락했다는 점은 미국 내 공급난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급등의 핵심 요인이 공급난이었던, 상반기 내 인플레이션 진정될 수 있다고 판단.

금일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미국 증시의 제한적인 약세, 연초 이후 지속적인 주가하락 과도 인식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원/달러 환율이 1,200 원대를 돌파했다는 점은 증시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1,200 원대를 지속적으로 상회했던 시기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되거나, 글로벌 경제에 대형 위기가 출현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현재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환율 급등 오버슈팅 성격이 내재되어 있으며, 추가 급등세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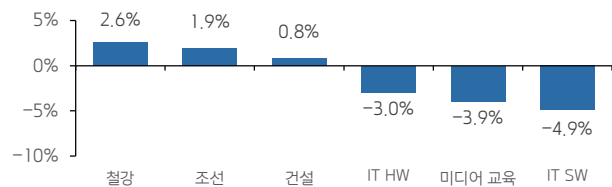
한편, 금일은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4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 삼성전자 포함 국내 상장사 전반적인 4 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 그럼에도 현재처럼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실적들이 양호하게 발표된다면, 국내 증시는 외부 충격에도 견조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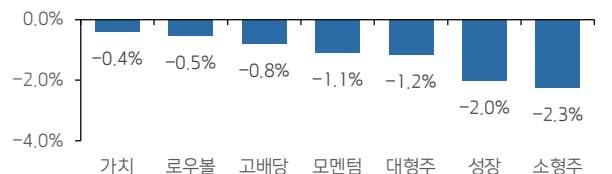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